

보도 일시	2022. 5. 26. 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5. 26. (목) 9:3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 고영호 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 홍정수 (02-2100-2664)

**「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」(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) 도입을 위한  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**

### 주요 내용

- 벤처·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’ 도입을 추진합니다.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(예: 60%) 이상을 벤처·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, 환매금지형(폐쇄형)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·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
- 또한,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입니다.
-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,
  - ①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, 일반 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·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
  - ②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,
  - ③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 1

## 개 요

- '22.5.26일(목)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-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·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”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.

## 2

## 주요 내용

- (기본방향) **공모펀드**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, **사모펀드**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·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“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”가 도입됩니다.
- (주요내용)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·설정·운용·회수의 쉼단계에 걸쳐 **공·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**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.
- ❶ (인가) **인가제도\***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 ※ 인가방향 : 시행령 등 개정 사항

- (인가대상) 자산운용사, 증권사, 벤처캐피탈(VC) 등
  - (물적요건)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 보유
  - (이해상충방지체계) 일부사항(예: 기업금융업무)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,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
  - (대주주요건)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,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
- ⇒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시 구체화

- ❷ (설정) “**인내하는 모험자본**” 조성이 가능하도록,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(중도환매 제한) 형태로 설정됩니다.
- 또한,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(예: 300억원)을 규정함으로써,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③ (운용) **유연한 투자전략** 구사를 허용하면서,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**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**를 마련합니다.

-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,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\*이 가능해집니다.

\* [예]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

- 한편,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\*,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.

\*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% 이상을 국채·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

【 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】

구 분	공모펀드	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	사모펀드
차 입	불가	가능 (최대 순자산 100% 이내*)	가능 (순자산 400% 이내)
대 출	불가	가능	가능
동일기업투자한도	자산총액의 10%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10% 이내	자산총액의 20%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% 이내	없음
안전자산 투자 의무	없음	자산총액의 10% 이내	없음

\*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

④ (회수)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**90일 내 거래소 상장**이 의무화됩니다.

- 따라서,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,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⑤ (투자자보호) 정기·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, 시당투자 의무화\*, 공시범위 확대(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, 하위 법규 사항) 등 **투자자 보호를 강화**하겠습니다.

\*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(예: 5%) 이상을 일정기간(예: 5년) 보유

- 또한,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,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벤처·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,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구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.
- 다만,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.
  - 정책금융, 벤처캐피탈(VC)의 경우 재정 등(예: 모태펀드)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·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-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.
  -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(구 PEF)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- 또한,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(예: 5년)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.
-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❶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, ❷운용대상, ❸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.
  - ❶ (조달자금의 원천·규모)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.
  - ❷ (운용대상)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  - ❸ (일반투자자의 접근성)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,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·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.

## 4

## 기대효과

□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·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.

- ① 벤처·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·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- ③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집니다.
- ④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「자본시장법」의 규율체계\*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.

\* 개인의 비상장기업 직접투자 수요를 전문 운용주체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투자수요를 충족하고,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자 보호장치 등 적용

## 5

## 향후 계획

□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은 금년 5월(또는 6월초)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
○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·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아울러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하여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 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홍정수 (02-2100-2664)

## 참 고

## 기존 벤처·혁신기업 투자기구와의 차이

구 분	기업성장펀드	벤처투자조합	사모펀드	공모펀드
운용목적	<b>벤처·혁신기업</b> 투자, 중소기업 scale-up	주로 <b>창업초기기업</b> 에 모험자본 공급	제한없음	제한없음
자금조달 (투자자 범위)	<b>제약없음</b> (정부자금×)	주로 정부(모태펀드) + 기관투자자	일반투자자 (→ 일반사모) 기관투자자 (→ 기관전용사모)	<b>제약없음</b>
<b>펀드설정</b>				
환매	<b>폐쇄형</b>	<b>폐쇄형</b>	개방형·폐쇄형	개방형·폐쇄형
상장	<b>상장(90일 이내)</b>	비상장	비상장	통상 비상장
규모	(예) <b>300억원 이상</b> (시행령 규정)	20억원 이상	규모제한 없음	규모제한 없음* * 단, 50억원 미만 소형 펀드는 일부 규제
존속 기간	<b>5~20년</b>	<b>5년 이상</b>	제한없음	제한없음* * 단 폐쇄형은 존속기간 설정
운용대상	(예) 성장기업 (벤처·비상장기업 등에 <b>자산의 60% 이상</b> ) (시행령 규정)	중소·벤처기업	제한없음 (기관전용의 경우 주로 성숙단계 투자)	펀드종류별로 상이 (증권/부동산/혼합)
<b>운용방법</b>				
차입	(예) <b>순자산 100% 이내</b> (시행령 규정)	차입 불가	<b>순자산의 400% 이내</b>	차입 불가* * 단 회계필요시 예외적 허용
대출	<b>대출 가능</b>	대출 불가	<b>대출 가능</b>	대출 불가
투자 한도	- <b>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20% 이내</b> - <b>피투자기업 지분의 50% 이내</b>	제한없음	제한없음	- 동일기업에 운용사 총자산의 20% 이내 - <b>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10% 이내</b> - <b>피투자기업 지분의 10% 이내</b>
회수방법	<b>거래소 시장매매</b>	만기상환/양도	환매 / 지분양도	환매
운용주체	(예) <b>자산운용사, 벤처캐피탈, (창투자, 신기사)</b> 증권사 (시행령 규정)	<b>벤처캐피탈 (창투자, 신기사)</b>	<b>자산운용사 / GP</b>	<b>자산운용사</b>
진입규제	집합투자업 <b>인가</b>	등록	일반사모·GP 등록	집합투자업 <b>인가</b>
투자자 보호장치	(예) 의무출자 비율(시행령) : <b>5%, 5년 이상</b>	출자금의 1%(GP) (공모벤처조합: <b>5%</b> )	없음	2억원, 3년 이상 (행정지도)
	<b>안전자산 보유의무 : 10% 이상</b>	없음	없음	없음
	(예) <b>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</b>	없음	없음	부실자산 공시* * 피투자기업 부도 등

\* **靑書** : 기업성장펀드와 他투자기구간 유사한 특징, **赤書**: 기업성장펀드만의 고유한 특징